



유라시아 보건의료 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유라시아 보건의료 포럼 출범

윤종필 국회의원 포럼대표 맡아

유라시아 보건의료 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국회의원 21명이 참여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공공기관, 민간 해외의료봉사단체 등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유라시아 보건의료 포럼 창립총회가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총회에 이어 '유라시아, 보건의료에서 길을 찾다' 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유라시아 보건의료 포럼이 창립총회를 갖고 공식 출범했다. 포럼 대표의원은 윤종필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맡았으며, 국회의원 21명이 참여했다. 김옥수 대한간호협회장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공공기관, 민간 해외의료봉사단체 등의 대표들이 회원으로 참여했다.

유라시아 보건의료 포럼 창립총회가 9월 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총회에 이어 '유라시아, 보건의료에서 길을 찾다' 주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한 대북 보건의료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보건의료 실태 파악을 위한 연구,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정토론회자로 나선 서순립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은 "대한간호협회는 1992년 총회에서 '남북 간 간호지식과 정보의 교류를 위하여 노력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새터민 간호봉사활동 등을 펼쳤으며, 2015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와 업무협약을 맺고 대북의료사업 교류활성화 추진과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을 결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3월 '통일간호포럼'이 출범돼 통일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간호교육, 간호 실무, 간호 법·제도 분야 등의 통합된 체계 마련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들은 세계보건기구의 대북지원전략 방향에 부합하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며 통일시대에 대비해야 한다"면서 "북한을 비롯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류·협력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의료단체의 단합된 협력체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종필 포럼 대표의원은 개회사에서 "보건의료 실태가 열악한 북한과 중앙아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를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민간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봉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포럼을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첫 발이 북한주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보건의료

정우택 새누리당 국회의원,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참석해 포럼 창립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했다.

정책토론회에서는 '유라시아 지역의 보건의료 실태 및 지원방안-북한을 중심으로' 주제로 강대희 서울대 의과대학장이 발표했다.

강대희 회장은 "한반도 분단의 오랜 역사는 보건의료분야의 남북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효율적이고 지속가능

C형간염 체계적 예방·관리 시스템 구축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 ... 환자보고 의무화

C형간염 관리체계가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되고,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인지 시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정진엽)는 최근 의료기관의 C형간염 집단 감염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C형간염 예방 및 관

리 대책'을 9월 6일 발표했다. C형간염은 아직 백신이 개발되지 않아 조기에 환자를 발견·치료해 감염원을 줄이고 감염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의 기본전략은 △C형간염 환자 조기 발견·치료를 통한 감염원 적극 관리 △주

사기 재사용 단속 등 감염 확산 차단 △의료기관 감염관리 역량 제고이다.

우선 현재 '표본감시 감염병 체계'로 돼 있는 C형간염의 관리 체계를 '전수감시 감염병 체계'로 전환시킨다. C형간염 환자를 인지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보고된 건에 대해서는 모두 역학조사가 실시된다.

역학조사 역량도 대폭 강화시킬 계획이다.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해 역학조사 인력을 즉시 증원하고 신속히 정규 역학조사관 증원에 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성공 정착 주력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심포지엄 개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원 방문문화 개선' 심포지엄을 9월 8일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병원 방문문화 개선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환자와 보호자에게 안전한 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의 향후 정책방향'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인력 공급, 수가개선 등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원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간호부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임상간호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이용자와 간호사의 만족도가 높고, 간호패러다임 변화와 근무환경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면서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간호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학생 실습과정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화기내과 교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병문안 문화개선이 진료와 병원 경영에 미치는 영향' 주제발표를 통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입원환자의 짐을 항상 시켜준다"며 "병원 수익률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원가분석 및 수가개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형식 고려대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영우 병원간호사회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개회식에서는 강중구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장이 개회사를, 성상철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환영사를 했다.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홍정용 대한병원협회장이 축사를 했다.

박병규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주혜진 기자 hjoo@

보수교육 프로그램 정보 안내

대한간호협회 KNA 에듀센터
edu.koreanurse.or.kr

진기로 했다. 신고 및 빅데이터에서 추출된 의심기관에 대한 역학조사를 강화한다.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 도입도 고려된다. 실태조사를 통해 선진형 고(高)유병지역의 생애 전주기 건강진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C형간염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단속강화방안이 마련된다. 일회용 의료기기의 수입·제조·유통·사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료기기 유통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올해 내 국회를 '의료기기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신고 및 빅데이터 분석에 따른 현장조사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특히 현장조사에 역학조사관을 참여시켜 환경검체 채취 및 현장조사 후 역학조사 진행에 민전을 가하도록 했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역학조사 결과 전이라도 영업정지 또는 병원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의원급 암검진기관의 내시경 소독불량에 따른 감염우려에 대한 감염관리 조치가 실시된다. 내시경 소독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과 함께 내시경 소독용 수가를 신설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다나의원(2015년 11월), 원주 현대정형외과(2015년 11월), 제천 양의원(2016년 1월), 서울 JS의원(2016년 8월)에서 의료기관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등으로 인해 C형간염 감염이 집단으로 발생했다.

주혜진 기자 hjoo@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오픈 랩(OPEN LAB) 상시 운영

대한간호협회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는 유휴간호사들의 경력 단절기간이나 역량개발과정에 따라 이론·실기교육(필수 교육시간 이수) 및 현장실무훈련 등 상황에 맞춘 탄력적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권역센터를 방문해 핵심 기본간호술기를 훈련해 취업 후 현장 적응에 도움을 주고자 각 권역 센터에 OPEN LAB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시 작 일 : 2016년 8월 16일
- 지원 대상 및 이용 자격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 등록된 유휴간호사
- 실습가능 내용
- 실기교육에 나와 있는 핵심실기 (현재 운영 중인 실기교육 교재 내용 참조)
- 센터별, 요일별 교육내용은 다를 수 있음 (권역센터별 운영 시간표 참조)

■ 이용 신청 : 권역센터에 전화로 예약신청

권역센터	연 락 처	권역센터	연 락 처
서울·강원	02-2268-2632	부산·울산·경남	051-442-3824
대구·경북	053-756-8487	인천·경기	032-441-2926
광주·전북·전남·제주	062-222-5025	대전·충북·충남	042-825-0749

가을학기 학위취득자 추가확인

2016년 가을학기 학위수여식에서 학위를 취득한 간호사가 추가로 확인됐다. 보건학 박사 1명과 간호학 석사 4명, 보건학 석사 1명이다.

또한 간호사신문 9월 1일자에 실린 학위취득자 명단 중에서 동국대 간호학과와 경우 석사학위 4명은 이번 가을학기 취득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가을학기 간호사 학위 취득자는 박사 107명, 석사 485명으로 최종 집계됐다.

박사학위 취득자는 △간호학 박사 105명 △보건학 박사 2명이다. 석사학위 취득자는 △간호학 석사 401명 △보건학 석사 50명 △교육학 석사 6명 △행정학 석사 6명 △사회복지학 석사 1명 △수사과학 석사 8명 △경영학 석사 10명 △생명윤리학 석사 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에 추가확인된 학위취득자는 다음과 같다.

- ◇박사학위 (한양대 대학원 보건학과) △박현희-신규간호사의 현실충격 변화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 ◇석사학위 (군산대 간호학과) △김선화-임상간호사의 극복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오희숙-지방의료원 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조직몰입, 고각지향성 및 간호업무성과 △윤정우-베이비붐세대 여성의 죽음불안, 죽음준비, 감사성향 및 삶의 질 △전은영-간호사가 지각하는 간호단위 관리자의 서번트 리더십이 간호사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 보건대학원) △김묘란-임신후기 초임부에 대한 분만체험 산전교육프로그램 적용 효과

간호사신문 발행인·편집인 김 옥 수 인쇄인 김 갑 기
1976년 12월 31일 창간 / 등록번호 : 서울다06308

◇대한간호협회 (02)2260-2511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4 koreanurse.or.kr
◇간 호 사 신 문 (02)2260-2571 FAX (02)2260-2579 독자주소변경 (02)2260-2571 nursenews.co.kr

보건복지부 위탁 www.RNjob.or.kr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
대한간호협회·대한중생병원협회

대한간호협회

2016 유휴간호사 현장실무훈련 지원사업 안내

유휴간호사 채용

➤

현장실무훈련 참가

➤

훈련비 지급

- 참가기관 기준(가, 나, 오, 권 중 한 개 이상 충족)
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예정) 병원
나. 실습지도자 교육 및 간호관리자 교육 이수 병원
- 유휴간호사 기준 : 경력단절 기간 1년 이상 유휴간호사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훈련비 지급

유휴간호사를 (수습)채용한 병원에 현장실무훈련비 지급

기간	훈련비 지급	지급액
1주	50,000원 X 5일	250,000원
2주	50,000원 X 10일	500,000원
4주	50,000원 X 20일	1,000,000원

※근무시간에 따라 지급(예시: 4시간 근무 50% 지급)

환자가 안전하고 국민이 행복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간호인력 확보!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앞장서겠습니다.

권역센터 안내

서울·강원 ☎ 02)2268-2631~3
인천·경기 ☎ 032)441-2926
대전·충북·충남 ☎ 042)825-0749
대구·경북 ☎ 053)756-8487
부산·울산·경남 ☎ 051)442-3824~5
광주·전북·전남·제주 ☎ 062)222-5025

※필요서류는 홈페이지(www.RNjob.or.kr)에서 다운로드